

“동양적” 환경 철학과 환경 문제*

심재룡**

1. 환경 철학의 자리매김

1960년대를 정점으로 전 세계는 산업화의 후유증인 심각한 환경위기를 피부로 느끼고 있다. 자연의 일부인 인간이 오만방자하게도 자연을 마치 인간의 이기적 목적을 위한 도구인양 마구잡이로 파헤쳐 ‘개발’한 결과, 인간이 태어난 고향인 자연을 훼손함은 물론, 그 속에서 인간 자신들의 삶조차 영위하기 어려운 지경에 이르렀다. 파괴된 자연을 회복하고 자연과 인간이 평화로이 공존할 수 있는 길을 모색할 것이 요청된다.

여러 가지 접근이 가능할 것이다. 우선 결자해지(結者解之)의 방식으로 과학기술적 접근 방법이 머리에 떠오를 법하다. 아마 직접적으로 효율적인 방법으로 환경오염의 주범인 산업을 오염과 파괴로부터 격리시키는 환경산업이 역시 과학기술을 이용하지 않을 수 없기 때문이겠다. 또 환경오염을 유발시키는 산업을 운용하고 이를 운용케 하는 여러 가지 사회 제도적 장치를 제어함으로써 환경문제에 접근하는 수도 있다. 환경법을 제정하고 환경청을 신설하는 등은 이미 환경문제에 대처하는 제도적 해결법 가운데 하나이다. 그러나 기술과

* 이 논문은 한국학술진흥재단의 1998년도 중점연구소 지원 연구과제(3년 연구과제)의 지원을 받아 수행된 연구의 결과물이다(KRF-1998-005-B00103).

** 서울대 철학과 교수

제도를 민반침하는 종교철학적 세계관의 문제는 역시 철학적 사유의 영역이다. 기술을 창출하는 것도 제도를 만드는 것도 모두 인간의 유위적 의식의 소산이라면 우리는 이른바 환경에 대한 인간의 의식을 점검하고 그 방향을 궁구하는 철학적 접근을 가장 근원적 해결책으로 생각하지 않을 수 없다. 상래할 인류사의 단계에서 인간과 자연이 서로를 해치지 않고도 공존할 수 있는 천학적 원리를 찾아야 할 당위가 요구되는 소이다.

천학함의 복직 가운데 하나는 인간이 손쉽게 삶을 영위하는 실천적 지혜를 제공하는데 있다. 인간과 자연의 공존 원리를 생각하는 철학적 탐구는 이제까지 전통적 철학의 분류에 따르면 인간과 자연의 한 쪽 즉 자연을 다루는 자연철학의 응용이나 또는 그 다른 한 쪽 인간들이 모든살이하는 지혜를 탐구하는 윤리학의 응용으로 충분할 듯싶다. 그런데 어느 한 쪽도 인간과 자연을 함께 아우르는 공생의 원리를 제대로 다루는 것 같지 않다.

자연철학은 근세 이후 물리학 화학 생물학 등의 자연과학으로 완골탈태(換骨奪胎)하여 철학의 영역으로부터 이미 독립한지 오래다. 더욱이 자연과학의 기초원리를 기술적으로 적용한 소위 과학적 기술의 발달로 바로 그 자연이 파괴되는 지경에 이른 현실을 보면 한 가닥 아이리니를 느끼기 전에 과학 자체에 대한 근원적인 의문이 생기기도 한다. 과연 자연과학은 가치 중립적이라서 그 원리를 이용한 기술의 응용으로 자연이 파괴되는 현상은 책임질 수 없고 책임질 일도 아니란 말인가? 최근 탈-현대(post-modern)를 부르짖는 일부의 과학자들이 도덕적 책임을 논의하기도 하지만, 아직까지 소위 과학 천학에게서 자연과학적 기술의 친인간(親人間) 일면도(一邊倒) 그리고 반자연(反自然)적 응용으로 만미암아 야기된 환경문제에 대한 천학적 성찰을 찾아보기란 어려울 것 같다.

다른 한편으로 자연의 파괴와 동시에 그 속에서 삶을 유지하는 인간의 생존이 문제되고 인간적 삶의 질이 파괴되는 환경문제는 인간

의 여러 가지 도덕적 문제를 원칙보다도 현실 적용에 민감하게 대응하는 소위 응용 윤리학이 다루어야 할 문제인 것처럼 보인다. 인간들이 슬기롭게 살아가는 원칙을 정립하려는 윤리학은 당연히 환경문제를 직결하기 위한 응분의 노력을 경주할 법하다. 그러나 이제까지의 윤리학은 대부분 공리주의적 외부주의이긴 하지만 어떤 원칙으로부터 윤리적 행동과 태도를 도출하려 하였는지 간에 지나치게 인간 중심적 사고의 틀을 벗어나지 못한 감이 짙다. 인간 중심적 윤리학의 틀을 벗어나는 환경철학을 일러서 반-윤리적 사고라고까지 극언하는 사례가 있을 정도이다.

환경 철학이 따라서 마땅히 철학의 한 분과로서 자리를 차지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까지의 철학은 대부분 인간중심주의이다. 나아가 인간 집단의 이기주의의 산물이었음을 부인하기 어렵다. 인간은 만물의 영장이라 여기어 동물 및 식물의 분류를 시도한 어느 체계에 따르면 인간을 정점으로 하여 하등동물과 고등동물을 나누고 있다. 근세 서양 철학의 미조로 일컬어지는 데카르트 같은 철학자는 같은 동물 가운데에도 강아지따위는 의식이 없이 움직이는 기계에 비견한 적도 있을 정도이다. 그렇다면 철학 자체의 틀을 벗어나지 않으면 환경 철학은 신 자리를 찾을 수 없겠다는 생각이 들 법하다. 이제서 특히 서양철학의 전통으로부터는 이처럼 환경에 대한 성찰이 부족했던가? 그 역사적 원인을 탐구할 필요가 있다.

이제 인간과 자연의 공존원리에 대한 철학을 제시하려는 문교가 서양 철학 전통을 비판적으로 검토하는 것부터 시작해야 하는 논거가 들어 난 폭이다. 또한 환경파괴는 지구 제국주의의 동점과 식민지 경영으로 저개발국에 보전된 한정적 자원을 과대하게 소비하는 소위 선진 문명국들 즉 산업적으로 이미 개발된 국가들에 의해 주도되어 온 것이 사실이다. 그렇다면 저들 선진 지구사회를 운영하는 철학적 원리에 무슨 문제가 있지 않았나? 특히 저들의 사고와 태도를 지배하는 주도적 종교의 가르침에 무슨 문제가 있지 않을까? 서양에서 영향력을 행사하는 종교 철학 전통을 비판적으로 검토하는 것으로부

더 환경 철학의 밑거름을 삼아보자. 본 논고는 대략 이와 같은 생각에서 출발한다.

그러나, 현실의 위기를 해결하는 지혜가 어떤 철학으로부터도 당장 도출된다는 보장은 없다. 아무리 그 위기가 심각하고 존각을 다투는 현실적 문제라 하더라도, 철학은 방정스럽게 환경문제를 해결할 만병통치약이 바로 여기 있다는 식으로 친박한 현실영합주의로 타락해서는 안 된다. 철학은 역시 문제의 근원을 궁구하는 학문의 왕자답게 의연한 태도를 취해야 한다.

이제까지 서양 철학은 중세에는 신학의 시녀로 근세 이후는 자연과학의 뒷처리로 시종한 감이 없지 않다. 탈-근대 탈-과학의 21세기를 바라보는 세기말의 철학은 인간과 자연의 공존 원리를 모색하여 그 위치를 새로이 정립하고 마침내는 인류의 위기를 슬기롭게 헤쳐나가는 금도(襟度)를 보여주어야 할 것이다.

이제 인간과 자연의 공존 원리를 탐색하는 새로운 철학의 시동(始動)을 추구해 보자. 서양 철학의 전통을 개괄적으로 비판한 다음, 동양철학 전통 가운데서 환경 철학에 값하는 기본 개념들을 비판적으로 검토하는 순서를 밟겠다.

2. 동양 철학을 환경 철학으로 전환할 수 있는가?

이른바 동양 철학자들이 환경 문제에 대해서 왈가왈부한다는 것이 무언가 이상하다는 생각이 들 법하다. 애시당초 환경 문제는 서구의 과학기술 문명이 자연을 정복한다는 생각에 오도되어 결과한 성장위주의 경제구조가 낳은 부산물이다. 어디 동양 철학이 끼어들 여지가 없어 보인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난 사반세기에 걸쳐서 동-서양 철학자들이 처음엔 환경 윤리라는 응용 윤리학의 한 분과로서, 그리고 요즘에는 환경 철학이라는 거창한 구호 밑에서, 환경 문제에 근원적 해결책을

제시하려는 이론적 작업에 일을 올리고 있다.

그 역사적 배경은 다음과 같다. 서양 문명의 두 원천인 기독교와 희랍 철학이 바로 근대 이후 서양이 주도한 과학 기술 문명의 정신적 지주였다. 그래서 과학 기술 문명의 부산물인 환경 문제도 결국 그 배경에 있는 서양적 세계관의 부산물이었다는 반성이 일어났다.

이와 때를 같이 하여, 동양의 여러 세계관에 눈을 돌려 환경 문제를 해결하는 데 이른바 동양 천학자들이 혹시 독특한 기여를 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희망적 견해가 요즘 심심치 않게 거론되고 있다. 여기서 동양 천학이 환경 문제와 건부되어 환경 천학이라는 논의의 마당에 한 마디 끼어드는 역사적 우연에 봉착한다.

(1) 동양 철학이 환경 문제를 과연 해결할 수 있을까?

(2) 해결은 못하더라도 혹시 동양 철학 가운데 어떤 형이상학이 또는 그에 부수하는 윤리적 태도가 환경 문제의 해결에 도움을 줄 수 있지 않을까?

본고는 이런 의문에 답하는 길이 되겠다.

우선 해당 비슷한 이야기를 먼저 띄워 놓고 시작하자.

첫 번째 의문에는 물론 해결할 수 없다고 답한다. 동양 철학이건 서양 철학이건 철학이란 환경 문제간은 구체적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 빵 한 쪽 굶지 못하는 철학의 운명은 동-서가 다를 바 없다. 그런 철학이 감히 현대 인류 문명의 사활을 결정지을 환경 문제에 무슨 기여를 할 수 있단 말인가? 동양 철학이라고 무슨 뚫줄한 수가 있는 것은 아니다.

두 번째 의문에는 이렇게 답한다. 천학이 문제의 해결에 직접적인 기여는 못한다. 다만 자연에 대한 인간의 태도를 근본적으로 바꾸어 놓을 이른바 환경 천학을 재구성 또는 창조할 이론적 정초를 시도할 적에, 서양 천학보다는 동양 천학 쪽이 유리하다는 견해가 있다. 이에 대한 찬반 양론을 소개해 보자. 이와 같은 시도에 다음과 같은 순서를 밟는다.

동양 철학이 어떤 점에서 딱히 환경 철학을 구성하는 데 기여할 수 있는지를 살펴본다. 우선 동양 철학을 한 묶음으로 묶어서 서양 문명의 부산물인 환경 문제를 한번에 해결한다는 꿈 같은 이야기를 비판하는 것이 여러 작업에도 선행한 첫 번째 과제일 것이다.

한류유(韓流有)의 동양철학이 없다면 다음으로는 동양 철학을 분류하여 인도 철학, 중국 철학 식으로 나누고 다시 인도 철학 가운데에도 배타 철학과 불교 철학을 세분하고, 중국 철학도 유가 철학과 도가 철학 그리고 선불교라는 독특한 세계관을 따로 따로 나누어, 각기 어떤 형이상학적 전제가 무슨 윤리적 태도를 유도할 수 있기에, 요즘의 환경 문제에 한 가닥 이론적 기여라도 할 수 있는 지를 따져 보아야 할 것이다.

그렇다고 물론 동양 철학이 환경 문제를 그 형이상학적 근거를 따지 해결해 고려는 철학적 작업에 전혀 쓸모가 없다는 주장을 하려는 것이 아니다. 각각의 철학 체계는 그 체계에 포함된 여러 개념간의 유기적 의미 연관 속에서만 그 올바른 뜻은 확고할 수 있다. 동양 철학 가운데 몇 가지 대표적인 개념들을 분석해서 동-서를 막론하고 인류의 코앞에 닥친 환경 문제에 과연 얼마나 적실한 해답을 제시할 수 있는지를 시험해 보아야 할 것이다. 그런 다음이라야 겨우 우리는 동양의 철학들이 환경 문제에 대해 얼마만큼 기여를 할 수 있는지 개념적으로나마 파악할 수 있을 것이다.

이무튼 동양과 서양, 과학-기술과 종교-철학이 한테 아우러지는 이론의 광장은 그 크기가 너무나 엄청나다. 자칫하면 속이 들여다보이는 일반화의 오류와 부적절한 범주의 혼용에 빠지기 십상이다. 이런 위험을 부릅쓰고 우리는 이제 몇 가지 사고 실험의 길을 떠나 보자.

도대체 무엇이 환경 문제인가? 이를 의식한 세인들의 관심도에 따라 분류를 시도한다. 환경 문제는 세인의 관심을 끈 순서로 따져서 대략 다섯 부분으로 나뉜다.

첫째, 공기 및 물의 오염이다. 오염은 우리의 피부에 와 닿기에 환

경 문제의 진부인 양 떠오른다. 아황산가스에 의한 공기 오염이 심하기로 서울, 심양, 테헤란이라는 최근의 달갑지 않은 보도는 우리의 마음을 사실로 증명한다.

둘째, 아름다운 자연 환경의 무분별한 파괴 행위다. 민둥산과 썩여진 나무들이 우리의 눈살을 찌푸리게 한다. 쓰레기에 뒤범벅이 된 아름다운 금수강산이 부석해나. 돼지가 세 짐을 더럽히듯 인간은 자신들이 살 삶의 터전을 자진해서 파괴하고 있다.

셋째, 인구의 폭발적 증가이다. 60년대 초에 우리나라에 「서울은 만원이다」라는 소설이 있었다. 이제는 서울뿐만 아니라 지구 전체가 만원이다.

넷째, 천연 자원의 고갈. 먹고 자고 물을 빼고 입는 데 인간은 자원을 이용해야 한다. 생태계의 먹이 사슬은 인간의 무분별한 남획과 오염으로 이미 인간을 지탱하기 힘들게 되었다.

그러니 다섯째, 생태계 자체가 파괴된다. 결국 약한 종들부터 멸종하면, 곧 이어 인종조차 이 지구상에서 사라지게 될 것이다.

인간의 코끝에 맴도는 역겨운 냄새는 곧 죽음의 냄새이다. 냄새에서 죽음으로, 즉 자연의 오염에서 인종의 멸절에 이르는 광범위한 환경 문제를 걱정하는 사람들은 (아직 인류가 사라지지는 않았다고 또는 내가 살아있는 한 별로 걱정할 일이 아니라고 오불관연의 태도를 취하는 사람을 제외하고) 세 가지 방면으로 해결책을 제시한다.

첫째, 환경 문제는 과학 기술을 잘못 적용해서 생긴 문제이니 결자해지(結者解之)라고 과학 기술만이 해결할 수 있고 또 해결해야 한다.

둘째, 과학 기술은 가치 중립적이라서 이를 오용 내지 남용하는 경제 사회 체제의 변혁만이 이 환경 문제를 해결한다.

셋째, 과학 기술이긴 경제 사회 체제이긴 환경 문제란 따지고 보면 그 속에 사는 인간들이 지닌 근원적 세계관의 산물이므로 환경 문제는 사람들의 세계관 내지 가치관의 변화로써만 해결할 수 있다.

이 세 가지 내인들은 서로 맞물고 돈다. 철학자의 논의는 당연히

세 번째 대안에 집중된다. 그렇다고 철학자라고 해서 반드시 철학적 해결에만 초점을 맞추는 것이 아니다. 과학 기술적 해결이 가능하다면 환경 문제는 이미 해결을 보았어야 마땅하다. 또 경제 사회 체제의 변혁으로 이 문제의 해결을 보려 해도 문제는 여전히 미결일 수밖에 없다. 왜냐하면 자본주의나 사회주의 국가를 막론하고 환경 문제의 심각성은 강중을 헤아리기 힘들기 때문이다. 첫째 둘째 모두 궁극적 해결책은 될 수 없다. 전국 생태계의 파괴를 유발한 인간들이 자연에 대한 태도를 개선시키는 데는 천학이 개재되어야 한다.

천학 가운데 서양 천학의 전통과 동양 천학의 여러 전통들을 대비하면 역시 동양 천학 쪽이 인간과 자연의 합일 내지 조화를 강조하는 반면, 서양 철학과 종교(기독교나 유대교)는 자연을 인간이 정복할 대상으로 본다. 동양 철학의 전통들이 환경 문제의 철학적 해결을 모색할 적에 새롭게 돋보이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이제까지 서양 철학자들이 환경 문제의 근본적 원인으로 지목되는 서구 기독교 및 회합 철학의 내강을 살펴보자. 다음과 같이 큰 줄기가 잡힌다고 한다.

- (1) 하느님은 자연계를 초월해 있다.
- (2) 자연은 성스러운 창조주 하느님에 의해 만들어진 피조물이다. 자연계의 사물들은 그것들이 존재하기 위하여 그 물전에 형상을 부여한 하느님의 권능에 의지한다. 하느님은 죽어 있는 물진 예컨대 민지, 흙이나 물과 공기 따위에 혼을 불어넣은 것이다.
- (3) 그런데 인간만은 하느님의 형상을 본따서 만들어진 것이다. 따라서 여타 자연계의 사물들과는 본질적으로 격리되어 있는, 한 차원이 높은 다른 물건이다.
- (4) 인간은 특별히 자연을 지배하도록 신으로부터 통치권을 위임받았다.
- (5) 신은 또 인간에게 자연을 복속시켜 지배하고, 인종을 증식하라는 명령을 내렸다.

(6) 유대교-기독교의 세계관을 지탱하는 형이상학적 구조는 따라서 진적으로 정치적 위계 전서이다. 즉 하느님 밑에 자연이 있다. 일종의 도덕적 우선 순위 내지 정치적 구조라는 특징적 면모를 지닌 세계관의 대표가 곧 유대교-기독교적 세계관이다.

(7) 인간에 내재한 신의 형상이야말로 인간이 본질적-내재적 가치를 지닌다는 형이상학적 근거이다. 신의 모습이 견여된 여타 자연계의 모든 것들은 따라서 도덕적으로 부가치하다. 자연은 기껏해야 도구적 가치를 지닐 뿐이다.

(8) 유대교-기독교의 자연을 폄하하는 세계관과 아리스토텔레스 및 토마스의 목적론이 결부되면, 자연은 결국 인간 즉 이성적 동물을 지배하기 위한 수단으로 전락한다. 이성적 생활이 자연계의 최고 목표이다. 따라서 자연은 인간이 이성적 생활을 영위하기 위한 일종의 보조 수단쯤으로 인식된다.

회람 철학 속에 환경 및 생태학적 사고에 적합한 사유 체계가 없었던 것은 아니다. 밀레토스 학파의 물환론(物活論, hylozoism)적 사고라든지 헤라클레이토스의 과정철학(過程哲學, process philosophy) 또는 피타고라스의 인간과 동물은 친척이라는 등의 단편적 생각들이 생태적 사고 즉 환경철학적 성찰에 기여하는 바가 없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그런 생각들은 결국 서구인들의 주요한 문화 전통으로서 수용되지 않았다. 그 대신 자연을 한갓 물건로, 무려한 기계로 환원시키는 원자론 내지 기계론이 서구인들의 자연관을 대표하게 되었다.

서구인들의 전통적 자연관과 현재의 환경 위기를 직면하는 정확한 인과 관계를 따진다는 것은 불가능하다. 그러나 우리는 대충 현재의 환경 위기를 이렇게 진단한다.

유대교-기독교적 신관과 회람-로마 철학의 원자-기계론적 사고를 서양 고대의 유산으로 물려받은 근대의 서구인들은 이를 자연 과학으로 제도화했고, 곧이어 산업 혁명을 통해 대량 생산-대량 소비의 경제 체제에 복속하는 기술에 집착함으로써, 자연 개발을 명지한 자

연 파괴라는 환경 위기가 도래하였다. 요컨대 형이상학적으로 자연의 본질을 잘못 이해했기 때문에 잘못된 태도가 나왔다는 것이다. 즉 인간이 자연을 정복한다는 엄청난 오만을 낳게 되었다는 것이다. 이처럼 환경 문제의 철학적 원인 분석은 인간의 참원적 오만을 전파하는데 시종한다. 이제 그 철학적 치유는 새로운 형이상학을 찾거나 창조하여, 인간이 자연에 대해 새로운 태도를 지니고 행동할 것으로 요약할 수 있다.

위와 같은 진단을 내린 상본인, 60년대에 환경 윤리의 고전적 논문으로 세인의 이목을 집중시킨 린 화이트 2세(Lynn Whiter Jr.)는 이미 그의 논문에서 다음과 같이 환경 문제의 치유를 위해 구체적으로 동양 철학 전통의 하나인 선불교에로의 방향 전환을 시사한 바 있다.

“생태계 (즉 자연 환경)에 대한 우리의 태도는 인간과 자연의 관계에 대한 관념과 직결되어 있다. 과학과 기술을 아무리 동원하여도 새로운 종교를 발견하거나 우리의 전통적 종교를 새롭게 고쳐 보려는 노력이 없이는 현재의 환경 위기를 벗어날 길은 없다. 우리 시대의 근본적 혁명가 비트너들은 선불교에 대한 친화감을 보임으로써 이 문제 해결을 위한 진정한 본능을 드러낸다. 선불교의 자연관은 기독교적 자연관과는 정반대 입장을 취한다.”

선승처럼 머리카락을 짧게 깎고 이상한 옷을 입은듯만능, 이국적 유물을 읊조리며 기지치림 김기리를 배회하거나, 신수자연에 유유자적하는 비트너들은 두 차례의 세계 대전을 겪어 정신적으로 파괴한 지구 사회에 식상한 전통 파괴자들이었다. 저들은 선불교를 서양에 전파한 스즈키(D.T. Suzuki)의 책을 대중화하는 데 앞장선 앨런 와츠(Alan Watts)의 여러 해설서들은 물론 「싯달타」라는 제목의 석가모니 전기로 불교 열풍을 진작시킨 헤르만 헤세의 낭만적 소설을 무지근히 읽었다. 이런 세대에게 환경 위기 극복의 싹을 발견할 수 있다고 생각한 화이트를 철학자로 볼 수는 없다.

동양에 대한 막연한 동경과 엄청난 기대는 서구의 전통적 세계관

을 비판하는 이른바 초창기 환경 철학자들을 특징짓는 태도였다. 마치 서구의 기독교 문화(Christendom)에 비견되는 동양 문화라는 한 덩어리의 일원적 세계관이 있다고, 일머무러 동양을 미화하는 일군의 서양 철학자들은 지극히 진박하고 영성한 환경 문제 치유책을 동양 천학이라 불렀다. 더 상상한 저들 나름의 체계를 내세워 유치하게 내놓는다.

여기에 덩달아 동양에 있는 이른바 ‘동양’ 천학자들도 김삿바람 물 질주의 지구 문명과 정신 위주의 동양 문화를 대비시켜, 동양이든 서양이든 이 세상의 온갖 잔치를 동양의 지혜를 재생시킴으로써만 치유 가능하다고 호언장담한다. 전체적 맥락을 무시하고 환경 문제에 대한 일말의 치유 가능한 개념이 발견되면 그대로 “이거야말로 만병 통치약이다”라고 주장한다. 우리는 일일이 지를 계몽적 철학자들의 장광설에 귀를 기울일 필요가 없다. 어떤 문제에 대해서건 입에 맞는 떡처럼 난변에 들어맞는 소위 ‘동양 철학’적 치유책은 없다.

그러나 우리는 이런 결론적 난안을 유묘한 채, 과연 어떤 동양 철학적 개념들이 그토록 환경 철학의 재창조에 기여할 수 있는지를 동양 철학의 개별적 전통들에 유념하여 치근치근 살피보자.

동양의 개별적 전통 사상을 연구한 전문가들이 제시한 환경 철학적 치유책들을 살피봄으로써 우리는 이렇듯하게 동양 철학을 한 묶음으로 하여 만병 통치약처럼 제시한 계몽적 서양 철학자들의 논거를 이해할 수 있다. 단 하나의 원리 대신 여러 개의 원리 내지 개념들을 그 본래의 맥락에서 살피보았다는 점에서 개별 전문가들의 노고에 감사해야 하겠다.

최근 이십여 년 동안 환경 문제와 건부되어 기록되는 동양의 여러 천학 전통 가운데 대략 다섯 전통들이 두드러진다.

인도의 사상임을 자처하는 통칭 힌두교 정확히 말해서 브라만교, 그로 대비되는 불교, 그리고 중국의 도가와 유가 사상, 마지막으로 인도(에 연원을 둔) 불교와 중국 도가의 섞임으로 발생한 선불교가 그 다섯이다. 과연 어떤 개념과 원리들이 환경 문제를 해결할 새로운

형이상학과 새로운 자연관으로 제시될까? 차례로 살펴본다.

베단타 철학과 환경철학

주장: 첫째, 브라만교의 철학적 완성형인 베단타 철학 체계를 환경 철학의 형이상학적 기초라고 제시하는 분들의 주장을 들어보자.

만유가 곧 단 하나의 유일한 실체인 아트만 또는 브라만이라는 범신론적 또는 일원론적 형이상학에 투철한 사람은 현상적 ‘나’이 곧 본질적 ‘나’와 다르지 않다는 것을 깨닫기 때문에, 이기심을 버리고 나-남을 떠난 일체의 존재에 대한 연민 내지 사랑을 실천하게 된다고 주장한다.

그런 형이상학적 신조에 투철하면 결과적으로 생명을 지닌 존재에 대해 비폭력적 태도(아힘사, ahimsa)를 지닌다. 비폭력이라는 부정적 연사로 표현했을 망정, 적극적으로 자연 만물을 하나로 여겨, 나와 같은 몸으로 여겨, 사랑한다는 교설로, 즉 생태학적 사고로 환기볼 수 있다고 한다.

도이센의 번역으로 베단타 철학을 읽고, 이에 감명을 받은 소펜하우어는 윤리적 고려의 내상을 인간만이 아니라 의지를 지닌 모든 존재에 적용한다. 슈바이처는 이를 이어받아 전통적으로 인간 중심적이던 서구인의 철학적 사유 세계를 생명 외경의 윤리 사상으로 한층 고양시킨 공적이 있다. 이만큼 인도의 정통 형이상학과 자연관이 서구 철학자들에게 직접적인 영향을 끼쳤다.

비판: 그러나 인도 베단타 철학이 환경 철학의 창조에 공헌하는 정도가 미심쩍다는 비판이 있다.

첫째, 생명 외경은 생명이 있는 개물에만 사랑과 존경을 바칠 뿐, 생태계 전체 즉 인종이나 종의 전체 너 나아가 생물과 무생물이 모두 포함된 생태계에 대한 고려는 아직 미흡하다.

둘째, 생태학적 사고의 근저에 깔린 생각은 한 생명의 발생에는 나

른 생명 내지 다른 개체의 죽음이 있다는 연환적(連環的) 진화관이다. 따라서 일체의 살생을 금기 내지 혐오하는 인도인의 세계관이 과연 생태학적 사고와 일치하는지는 더 두고 생각해 볼 문제이다.

셋째, 베단타의 형이상학적 일원론은 결국 이 세상이 허깨비에 불과하다는 비물질론이거나 또는 모든 존재가 서로 연결되어 있다는 신비 체험에 근거한다. 그렇다면, 생태학적 사고의 근거에 깔린 실체적 개체들의 연환적-유기체적 세계관과는 거리가 멀다고 할 수밖에 없다. 세상을 실제로 보는 생태학과 허깨비로 보는 브라만교는 아무리 맥 보를 양보하여도 양립할 수 없는 형이상학적 모순을 드러낸다.

불교 철학과 환경철학

주장: 불제, 인도의 소위 정통 사상인 브라만교와 견반하여 이단의 소리를 듣는 불교를 보자.

아드만의 실체성, 항상성을 부정하고 개개 사물을 인연 화합 소생(因緣和合所生)으로 연기(緣起)하는 제법(諸法)이라고(諸法無我) 주장하는 불교의 형이상학은 베단타 식 허깨비 일원론이 아니다. 그러나 살생을 금기하는 아हि카(비폭력)를 내세워 자비를 자연에 내한 인간의 기본적 태도로 삼는 점에서 인도의 철학적 전통에 뿌리를 두고 있다. 이 세상의 온갖 고통을 뿌리뽑겠다는 치료사로서 깨진 사람 석가모니가 제시한 처방은 일체의 악행(諸惡莫作) 착한 일은 받들어 행하며(衆善奉行) 자신의 마음(意圖)을 스스로 맑게 하지는(自淨其意) 지극히 윤리적인 인과론이다.

환경 문제는 인간이라는 종족이, 특히 서양인들과 이들의 생활 방식을 모범으로 여기어 이를 모방하는 인종들이 만든 고통 가운데 하나일진대, 부처의 해결책은 분명 한가닥 희망의 빛을 던져줄 듯싶다. 인간들의 욕심을 줄이거나 자연대상 일체의 욕망의 대상에 대한 무집착의 태도를 지님으로써 개반 및 그 명목의 자연 정복이라는 집념이 벗어난 환경 문제가 해결을 볼 수 있겠다.

비판: 여기에 소위 달관의 경지, 일반의 초관심적 태도가 지닌 현재 부정적 경향을 꼬집어 비판하는 소리가 있다. 인도 불교에는 이전 지엽적 냄새가 짙다는 것이다.

환경 철학은 생명 무생명을 막론하고 이 지구를 모든살이의 유일한 터전으로 보고 함께 더불어 적극적으로 잔 식자는 운동의 초석을 다지자는 것인데, 불교는 나 같이 죽자는 소리가 아닌가 의구심이 일어나는 모양이다.

아마도 관심 내지 욕심의 눈으로 보아, 초관심을 무관심으로 잘못 이해하고, 또 탐욕, 화냄, 어리석음 등의 부정적 욕심 없애기를 아예 살기를 포기하는 태도로 자칫 오해하는 비판이 아닐까 한다.

도가철학과 환경철학

주장: 셋째, 중국 도가의 무위자연적 태도를 들어 환경 철학을 창조하기 위한 개념의 보고(寶庫)라고 극찬하는 학자들이 있다.

연자(列子)는 바람을 타고 노니는 선인(仙人)이다. 비유해 만하자면 풍력 발전을 이용한다고나 할까? 자연의 이치에 순응하며 자연을 조절하는 능력의 극치가 도통이다. 억지로 애씀이 없는 행위 곧 무위(無爲)란 일체의 기습을 무조건 반대하는 반-문명적 태도가 아니라, 다만 자연의 이치에 어긋나는 짓거리를 하지 않는다는 뜻이다. 억지로 문을 때서 벽을 발리거나 댐을 막아 관개를 하는 등 인간의 만-생태학적 유위(有爲)에 반대하는 것이지, 배를 만들어 물 위로 다니고 썰매를 만들어 눈 위를 달리는 것에 반대하는 것이 아니다. 요즘 식으로 말하면 지나친 에너지의 낭비를 비난하는 것이 도가적 생태학-환경 철학이라는 것이다.

비판: 물론 위의 도가 예찬론자처럼 유위와 무위가 무척 다르듯 쉽게 구별되는 것이면 얼마나 좋으랴? 분명 그 개념적 조작을 실제로 적용하는 데는 자질구레한 문제가 많다. 즉 개념의 적용에는 문제가

있다.

그러나 크게 보아서 원자력 발전으로 난방을 하자는 요즘의 기술론자(테크놀로지스트)는 유위의 극치요, 환경론자들이 권장하는바 태양 일 난방 장치(passive solar heating)는 도가식 무위에 속한다 하겠다.

유가철학과 환경철학

주장: 넷째, 정치 사회 문제의 해결에만 집착하는 중국의 유가 철학에서도 환경 철학에 유리한 개념을 발견할 수 있다고 한다.

흔히 복고풍의 진통 묵수주의, 예의 범도에 엄격한 형식주의라는 딱지가 붙은 유가 철학에도 서구의 개인주의에 대한 효과적 해독제인 인간(人間), 만 그대도 인간끼리 그 사이에서 벌어지는 온갖 사회적 관계의 매트릭스(matrix)로서의 사회적 인간에 대한 강도높은 이해인 인간주의를, 그 철학의 중심에 깔고 있다. 따라서 이 생각을 한 차원 높이든가 또는 차원을 달리하여 생물 공동체(bio-community)에 까지 적용하면 즉 사회적 환경론(social ecology)으로서의 인간론으로 확장하여 지구 환경론 즉 환경 철학으로 승화시킬 수 있다는 것이다.

비판: 여기서는 도가에서처럼 단순한 개념 적용의 문제가 아닌 아무래도 개념의 의도적 재창조 작업을 거치야 한다는 단점이 있다. 그러나 아무튼 유내교·기독교처럼 만자연적 조원자의 개입이 없는 유가의 사회적 인간주의는 앞으로 환경 철학을 구성할 때 그렇게 큰 결림돌은 아니될 터이다.

선불교와 환경철학

주장: 다섯째, 이미 미실체적 존재론의 무극인 불교 철학에서 환경 철학에 가장 합당한 형이상학적 주춧돌을 발견하리라고 짐작했다. 이처럼 불가의 무아(無我)가 도가의 무위(無爲)와 결합하고 그 위에 심

미적 자연관을 결들인 선불교에서 우리는 이미 린 화이트가 이렇듯이 이미듯이 철학자로서 예견한 대로 환경 철학의 준-완성형을 찾는 듯하다. 생태학 내지 환경 철학이 지향하는 인간과 자연의 혼연일체(integration) 또는 몰아적 통합을 보는 것이다.

비판: 다만 선이 지향하는 심미적 자연관이 곧바로 환경 문제에 해결하는 올바른 내도라고 단정짓지 못하는 안타까움이 남는다.

선에 관한 논의에서 이미 거의 결론적인 이야기를 한 셈이다. 동양 철학을 한 묶음으로 보고 환경 문제를 일기에 해결한다고 넘비는 망발을 빙하지 않더라도 동양 철학 전통의 하나하나에 그럴듯한 개념들이, 환경 문제를 근원적으로 해소하는 듯한 개념들이 있는 것은 분명한데 그 개념들을 그대로 직수입해서는 환경 문제의 해결이나 환경 철학의 수립에 사용할 수가 없다.

동양 철학들의 이모저모가 아무래도 전통적 서양 철학이 지질렀다고 주장되는 환경 문제의 주범은 아닌 듯하다. 그렇다고 환경 문제를 해결하는 직방 또는 묘방을 제공하지 못함은 말할 여지도 없다.

한 걸음 늦추어서 그러면 환경 철학의 수립에는 얼마나 기여할 수 있을까? 물론 환경 철학으로 대번에 사용하기에 걸끄러운 비환경 철학적 요소들을 상당히 걸리내야 할 것이다. 예컨대, 카르마 또는 인과응보의 윤리적 함축과 생태학적 먹이 사슬의 비윤리적 사실과는 어떤 연결 또는 조정이 가능한지를 따져보아야 한다. 또 중국의 음양 개념은 자연계 아니 천하만물을 양분하는 데 얼마나 유용한지? 유위 부위의 멋진 개념적 조작을 원자력 발전이나 핵귀종의 보호냐를 따지는 소위 환경 영향 평가에 어떻게 직용할런지? 해남, 연반 또는 도통했다는 깨친 사람의 내도는 생태학이 파라는 자연에 대한 인간의 바람직한 내도로서 그대로 수용할 수 있는 것이니? 이 모두 엄청난 철학적 재구성 작업을 거쳐야만 이른바 환경 철학에 값하는 동양 철학으로 탈바꿈할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이제부터 동-서 철학을 가르치 말고 하나의 생명밖에 지니지 않은 지구인들이 하나밖에 없는 지구와 더불어 생명 무생명을 막론하고 함께 다같이 잘 사는 철학 즉 지구 철학으로서의 환경 철학을 만들어 나가야 한다.